



## 제61회 방송의 날

### “저출생 위기 극복... 공영방송의 역할”

KBS는 제61회 방송의 날(9월 3일)을 맞아 지난 4일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수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공사 경영과 방송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KBS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기획들도 공개됐다.

박 민 KBS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방송의 위기 속에서 KBS는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토대로 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역할을 요구받았다”면서,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이 KBS의 역할 가운데 하나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민 사장은 이를 위해 공사 직원들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 육아휴직자 승진 임용 제한 폐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관과 신관, 별관 등의 주차장에는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의 장도 마련한다. 공사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두 번째 ‘저출생위기대응 방송주간’을 편성해 특집 음악회와 강연 프로그램, 특집 <KBS 뉴스 9> 등 한층 깊이 있고 다양한 저출생 관련 콘텐츠를 선보였다. 10월에는 국내외 석학과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KBS 미래인구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 제5회 시청자주간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

9월 2일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제5회 시청자주간 개막식이 열렸다. 올해 시청자주간 슬로건은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 제32기 시청자위원회 출범... 시청자위원회상·시민기자상 등 시상

이날 개막식에 이어 신임 시청자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제32기 시청자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또한 시청자 제작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상’과 우수 제보자에 대한 ‘시민기자상’ 시상도 이어졌다.

### “미래세대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시청자주간 포럼

9월 4일 KBS아트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저출생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세션 1)’과 ‘소수자 포용성과 다양성 확대(세션 2)’에 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과 관련해, 미디어가 청년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 1020 세대의 눈으로 본 KBS, 케미(KEMI)단 영상 칼럼

KBS 제4기 케미단 25명이 제작한 5부작 <1020 세대의 눈으로 본 KBS>가 KBS 1TV와 KBS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예능·드라마·방송기술 등 KBS의 다양한 분야를 1020 세대의 눈으로 담아낸 회당 5분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방송제작 현장과 입체 음향 신기술, 재난미디어센터 및 우리말 홍보 활동 등이 젊은 시청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담겼다.

## 13기 KBS 이사회 공식 출범 서기석 이사장 재선임

제13기 KBS 이사회가 9월 4일 첫 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이사회는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 이사장은 직전인 12기 KBS 이사회에서도 일 년여간 이사장을 맡았다.



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3기 이사회에는 기존 12기 서기석, 권순범 이사 외에 류현순(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인철(변호사), 허엽(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여성신문사 부사장), 황성욱(변호사) 이사가 새로 합류했다. 기존 야권 추천 이사인 이상요, 김찬태, 류일형, 정재권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



## “시청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체험’ KBS 견학홀

KBS는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시청자를 섬기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억여 원의 투자를 통해 4개월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난 ‘KBS 견학홀’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 KBS 대표 콘텐츠 전시·소개... 다큐존·드라마존·예능존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등에서 빛났던 KBS의 대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빙하>, <히든 어스>, <차마고도> 등 다큐멘터리는 물론 정통사극에 실제 사용되었던 의상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고려겨란전쟁>에서 감감 찬 장군이 귀주대첩 때 착용한 ‘고려 상원수 찰갑’,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활약할 때 착용한 ‘두석린 갑주’ 등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볼거리이다.

### <뮤직뱅크> 포토존 인기... ‘버티고’ AI 기술 직접 체험

예능존에는 <뮤직뱅크> 공연장 입구를 재현했다. 마치 <뮤직뱅크>를 보러 온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KBS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멀티캠 영상 솔루션 ‘VVERTIGO(버티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가수가 움직일 때마다 영상이 자동으로 추적되는 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 나도 뉴스 앵커·기자가 된다!... 체험 영상도 제공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현장도 체험할 수 있다. 뉴스 체험관에선 <KBS 뉴스 9> 앵커가 된다. <KBS 뉴스 9>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앵커석에 앉아 첫 뉴스를 전하는 짜릿함도 느낄 수 있다. 체험 장면을 촬영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또 다운로드 서비스도 가능할 예정이다.

### 애니메이션 <구름빵> 더빙 체험... <구름빵>에 내 목소리가!

KBS가 방영한 애니메이션 <구름빵>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빙해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화면에 성우처럼 내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이다. 제작된 영상은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어른들을 위한 KBS 사극 더빙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 스포츠 스타들의 애장품 대공개!



최근 폐막한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와 탁구 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신유빈 선수의 사인 라켓, 선수단복과 공식 시상식 의상도 전시됐다.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사인 유니폼,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입었던 유니폼, 미국 메이저리그 시절 오승환 선수의 사인볼 등도 함께 전시돼 있다.

## “제32기 KBS 시청자위원회 출범”

제32기 시청자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24.9.1.~2026.8.31.)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표성수 위원장(인권)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인권센터)	홍승빈 위원(학부모)	학부모정보감시단 모니터링 팀장 (학부모정보감시단)	김재봉 위원(언론)	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관훈클럽)	이영태 위원(언론)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공정언론국민연대)	김연미 위원(경제)	입소스(주) 광고및브랜드 조사본부장 (한국조사협회)
구명숙 부위원장(여성·청소년)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명예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태민 위원(소비자)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노현숙 위원(언론)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자유언론국민연합)	홍승철 위원(경제인·소외계층)	(사)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 이사장 (행복을 나누는 복지법인)	추선희 위원(문화)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과학문화융합포럼)
이경균 위원(학부모)	(사)한국사학법인 연합회 사무총장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박선경 위원(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상기 위원(언론)	온라인 매체 'THE Asian' 발행인 (한국기자협회)	배동희 위원(노동)	노무법인 하이랩 대표 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조남익 위원(과학기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 ‘저출생 위기대응’ KBS 역량 결집

지난 6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출범시킨 KBS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 대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행사와 사내 제도 개선, 저출생위기대응 방송주간 등을 추진하며 공사의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 제2차 저출생위기대응 방송주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2차 저출생위기대응 방송주간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형 콘서트, 토크가 결합된 심리 강연 3부작과 저출생의 현주소 및 대안을 조명한 정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집중 방영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집중 편성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달 1주일씩 특별 방송주간으로 운영된다.

### 가족 특집 음악회... 현실 직면 특집 강연

자녀와 함께 보는 특별 공연 1TV <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우리 아이 우리 미래>가 9월 4일 KBS홀에서 75분간 진행됐다. 가수 원더걸스 선예, 걸그룹 트리플에스, 황치열, 정인, 육중완밴드 등이 출연했다. 심리상담가의 강연 프로그램도 방영됐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1TV에서

는 <사랑 결혼 아이-마음> 3부작을 편성했다. 자녀 계획 때문에 갈등하는 예비부부, 육아로 힘들어하는 부부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프로그램이다.

### 토론·뉴스·다큐... 저출생 문제 등 연속 조명

9월 8일 1TV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정책은?’이라는 주제로 80분간 생방송 토론을 열었고, 9월 4일부터 6일까지 1라디오 KBS 열린토론 저출생 대응 특집을 회당 70분씩 모두 3회 편성했다. <KBS 뉴스 9>에서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연속 기획을 이어갔고, 9월 8일 200회를 맞은 <이슈픽 썸과 함께>는 ‘소멸과 생존’을 주제로 한 3부작 중 1부를 방영했다. ‘2024 저출생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너를 만난 날-해피버스데이 2부작>은 9월 7일에 이어 14일도 방송된다.

## 가족 친화적 제도와 환경 조성 확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KBS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내 환경과 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임산부·영유아 동반 차량은 여기 주차하세요!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해 차량으로 출퇴근할 경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을 6면에서 21면으로 확대했다. 임산부 등이 KBS를 방문할 경우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 12면을 신설했다. 특히 임산부 주차구역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차 폭을 2.5m에서 3.3m로 넓혔고 KBS 직장 어린이집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도 폭 5m로 확대했다. 임산부 직원과 방문객은 50%, 영유아 동반 직원은 30%가량 주차료를 낮춰 준다.

### 일과 양육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내 근로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하반기 직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이 목표이다.

사내 제도 개선안		
내용	현행	개선(안)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1일 2시간)	16주	24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5일
여성 난임 치료 휴가	2일	최대 4일
유급 육아시간(5세 이하)	1일 1시간	1일 2시간
영유아 돌봄 유연근무제 신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4주간 160시간 (선택근무) <small>* 단, 근로자대표 서면협의 필요</small>
육아휴직자 승진임용	제한	가능

## I·N·T·E·R·V·I·E·W

# “노산도 축복... 선입견 버려야”

지난 8월 14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노산이어도 괜찮아’ 방송 이후 노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노산이어도 괜찮아’는 41살에 자녀를 출산한 정경아 PD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해 만든 첫 프로그램이다.



### Q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난임 치료를 고민하던 중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연히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러나 출산 전까지 노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지우기 힘들었다. 아마도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산이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다.

### Q 제작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노산을 장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35세 이상의 산모를 고령으로 규정한 것은 1958년 국제산부인과연맹이 공표하면서부터이다. 66년 전 기준으로 여전히 임신과 출산의 위험성을 평가롭다. 국제산부인과연맹 측에 현재 입장을 물었더니 고령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은 흔한 사례이며 건강한 출산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현대 의학기술과 향상된 산전

관리기술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Q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분은 경기 군포시에 사는 천은혜(41)·소병국(43)씨 부부였다. 자궁근종제거술을 받았던 은혜 씨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 난임 시술을 택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기다렸다. 그러다 올해 자연임신으로 딸을 순산했다. 무엇보다 출산 과정 등 개인적인 영역을 공개하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흔쾌히 출연을 결정해줬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해 주셨던 게 아닐까 싶다.

### Q ‘엄마’ 직원으로서 KBS를 평가한다면?

부서에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동료와 선배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동료들의 배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임신·출산에 따른 업무 공백의 우려도 컸을 것이다. 이제는 동료와 시청자분들께 갚아나가야 할 차례다. 공영방송 PD로서 스스로 부여한 책임감도 있다. 진실을 정확하고 담백하게 잘 전달하겠다.

# ‘한가위를 풍요롭게 채울’ KBS 특집 공연 미리 보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오르디 지오디〉 등 매해 추석마다 특집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던 KBS가 명절 안방에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한다.

## KBS 대기획 〈딴따라 JYP 박진영〉



연예기획사 수장이자 프로듀서, 현역 가수로 종횡무진 활동하는 박진영이 데뷔 30주년을 맞아 KBS 추석 대기획 〈딴따라 JYP 박진영〉으로 찾아온다. 특설 무대를 배경으로 15인조 밴드의 연주에 맞춰 편곡한 메가 히트곡을 라이브로 선보인다. 박진영이 프로듀서를 맡았던 가수들과의 합동공연은 또 다른 재미! 가수 비, 그룹 지오디의 박준형·데니안·손호영·김태우, 원더걸스의 유빈·선예·선미, 2PM의 니쿤·우영·준케이·찬성, 트와이스 등이 출연해 30여 개의 엄선된 곡들로 무대를 150분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 9월 16일(월) 20시 30분 **KBS**

## 한가위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



추석 연휴를 맞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대형 공연이 KBS홀에서 펼쳐진다. 〈불후의 명곡〉, 〈하이엔드 소금쟁이〉 등의 예능 MC로도 친숙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 2008년 1TV 〈전국노래자랑〉에 ‘트로트 꿈나무’로 첫 출연했던 이찬원은 이번 추석 특집 방송을 통해 생애 첫 단독쇼 무대를 선보이게 됐다. 이날 공연은 ‘시절인연’ 등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음악들과 특급 게스트로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 9월 17일(화) 19시 50분 **KBS**

# 가을은 KBS 드라마와 함께!

## ‘액티브 시니어’ 시대상 반영 〈개소리〉



활력 만점 시니어들과 경찰견 출신 견공 소피가 그리는 유쾌하고 발칙한 시추에이션 코미디 드라마 〈개소리〉가 9월 25일 첫 방송된다. 이순재, 김용

건, 예수정 등 시니어 출연진 5인방의 나이만 합쳐도 약 380세! 이들이 펼치는 노련하고 유쾌한 노년 성장기는 젊은 배우 중심의 기존 시트콤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것이다. 개와 소통하며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해 간다는 신선한 설정과 주역 이순재와 견공 소피의 케미스트리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재미와 감동을 전할지 기대된다.

▶ 9월 25일(수) 21시 50분 첫 방송 **KBS**

## 주말드라마 명가의 자존심을 세운다! 〈다리미 패밀리〉



9월 28일 첫 방송 예정인 KBS 특별기획 새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는 ‘청림 세탁소’ 다림이네 가족이 우연히 백억 원이 든 돈 가방

을 발견한 뒤 벌어지는 로맨틱 돈다발 블랙코미디이다. 〈미녀와 순정남〉의 후속작으로 〈으라차차 내 인생〉, 〈누가 뭐래도〉 등 가족극의 달인 성준해 감독과 〈파스타〉, 〈질투의 화신〉 등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 서숙향 작가가 뭉쳐 찐한 감동과 웃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36부작으로 통상적인 주말드라마보다 회차를 줄였다. 트렌디하고 빠른 전개를 원하는 주말드라마 시청자들을 겨냥했다.

▶ 9월 28일(토) 19시 55분 첫 방송 **KBS**

## 단신

# 제2차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무급 휴직 신청

공사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에 나섰다. 우선 ‘2024 제2차 특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8월 31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특별명예퇴직에는 22명, 희망퇴직에는 6명 등 총 28명이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했다. 직종별로는 ▲PD 3명 ▲기자 5명 ▲방송기술 3명 ▲방송경영 4명 ▲아나운서 3명 ▲IT 1명 ▲영상제작 4명 ▲촬영기자 2명 ▲방송음악직 1명 ▲전문기술 2명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2차례에 걸쳐 2개월 단기 무급휴직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